

경제

미래 사회 주도 '지식정보산업' 박차

광주, 이젠 생산도시
(下) 신성장동력 육성 본격화



올들어 터치 용·복합산업과 스마트센서 산업, 3D융합산업 등 고부가가치의 지식정보산업들이 광주의 미래 경제를 책임질 신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광주지역 터치산업의 대표주자인 솔렌시스 공장의 생산라인.

광주시는 민선5기 출범 이후 상승세를 타고 있는 지역경제를 발판삼아 터치 용·복합산업과 스마트센서 산업, 3D융합산업, 디자인산업 등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정보산업을 광주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정보화사회의 핵심으로 떠오른 이들 산업을 광산업과 자동차산업을 비롯한 기존 산업과 연계, 발전시킴으로써 광주의 미래 성장을 담보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광주시는 특히 이들 신성장동력 산업이 다가올 미래사회를 주도하게 될 것으로 보고 기초기술 개발과 인력양성, 국내외 선도기업 유치 등에 적극 나서는 등 토대를 마련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터치 용·복합 산업
터치산업은 지난 2007년 애플 아이폰이 출시된 이후 터치스크린 패널 시장이 5년간 연평균 42%가 넘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초고속 성장을 구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성장가능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지역 주력 산업인 광산업과 정보가전산업, 자동차부품산업, IT·CT산업 등과 접목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터치산업을 지역경제 성장 견인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미 광주과기원에는 광주와 전남·북 지자체를 연계한 '터치 용·복합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단'이 설치되어 있으며, 오는 2014년 4월까지 3년간 277억원을 투입해 관련 기술 개발과 인력양성에 나설 예정이다. 광주과기원에서는 터치업계의 대표기업인 솔렌시스를 비롯해 광주과기원과 광주테크노파크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 클러스터의 경제적 효과는 작·간접 고용 창출 2000여명, 5년 매출 누계 7472억원, 수도권 대기업 4천 등 15개 관련업체 참여 등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최종 목표는 세계 터치패널 시장 매출의 10%를 확보하는 것이다.

터치 산업 클러스터 구축
세계 시장 매출 10% 목표

스마트센서·3D·디자인 산업
광산업·자동차산업과도 연계

센터 건립과 인력양성 그리고 상용화기술 개발에 나설 방침이며, 이를 통해 5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50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D융합산업
광주시는 광·정보산업 등 지역 주력 산업의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3D기술 채택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3D LED를 비롯해 지능형센서나 프로그래밍기, 의료가기, 전자로봇 등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차별화하고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해서는 3D기술이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3D복합경수술로봇의 경우 가격이 1대당 40억원으로, 기존 2

로수술에 비해 40배가 비싸고 수술시간은 30% 단축, 성공률은 30%가 더 개선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광주시는 대구·경북과 공동으로 초광역연계사업을 추진, 3D융합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기존 지역 전략산업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오는 2012년부터 5년간 총 사업비 1200억원을 투입, 북구 오동동에 건축면적 8200㎡에 4층 규모의 상용화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는 것은 물론 인력양성과 마케팅지원, 기반구축기술 및 제품기술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디자인산업
디자인 산업은 투자대비 효율이 큰 대표적인 지식서비스 산업이다. 반도체 업종의 부가가치율이 24.9%, 자동차산업이 20.8%인데 비해 디자인산업은 43.9%로 2배를 웃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는 애플의 성공사례처럼, 디자인은 몰라 해가는 기업도 당내에 되살릴 수 있는 비장의 무기로 인식되고 있다. 광주시는 이 같은 디자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09년과 올해 광주 디자인대학육성사업단 주관으로 광주테크노파크와 정보문화산업진흥원, ETRI호남권연구센터, 광주인탑스 등이 참가해 디자인과 광기술, 전자공학, 경영학이 융합된 디자인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2010년부터 2013년까지 28억원을 들여 디자인 상품화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광주테크노파크 주관으로 22억원을 투입, 디자인분야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 평균은 3.4%였다.

이는 올해 정부와 국책은행, 민간 연구소 등의 전반적인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세계 경제 회복세 둔화에 따른 유가, 원자재 등의 가격 하락과 기저효과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83%가 올해보다 상승에 1,000~1,100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저가낙찰제 100억 이상으로 확대 반대"

건설업계 대규모 집단행동 나선다

전국 2000여명 공청회 항의 참석

건설업계가 정부의 최저가낙찰제 확대 방침에 항의해 10일 대규모 집단행동에 나선다.

9일 광주·전남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서 시행 중인 최저가낙찰제를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 적용키로 하고, 이에 대한 설명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10일 오후 2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개최한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최저가낙찰제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무리한 저가낙찰로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모두 동반부실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저가 낙찰을 반대하며 정부에 건설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 건설사와 지방 건설사들의 영역인 100억~300억 원 공공공사까지 확대할 경우 해당 업체는 고사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건설업계 분석 결과, 지난 2006년 최저가낙찰제가 500억원 이상 공사에서 현행 3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된 이후 업체들이 공사비를 줄이려고 내국인 대신 임금이 저렴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주로 채용하면서 연평균 5만6000개의 내국인 일자리가 사라지고 미숙련 근로자들의 산업재해가 늘어났다. 또 고용 감소뿐 아니라 하도급·장비·자재 업체는 물론 지역 하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모두 동반부실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저가 낙찰을 반대하며 정부에 건설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 건설사와 지방 건설사들의 영역인 100억~300억 원 공공공사까지 확대할 경우 해당 업체는 고사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건설업계는 지난 6월30일 확

대 철폐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하고, 건설근로자 12만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남도와 광주상공회의소 등 지자체와 경제단체들도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되면 지역 건설사들이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며 이를 유보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와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 건설 관련 단체들도 9일 성명서를 내고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폐를 요구했다.

최상준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회장은 "업체 간 과당경쟁과 덩핑입찰로 인한 적자사공으로 부실시공과 고용감소수 초래되고 있을 뿐 아니라 원·하도급·장비·장비 업체 모두 경영이 악화되는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최저가낙찰제 확대 계획을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주최: 광주지방비서관실

박스형 경차 '레이' 출시

기아자동차, 혁신 디자인 공간활용 극대화



기아자동차가 이달 말 출시예정인 박스형 경차(프로젝트명 TAM) '레이(RAY)'를 9일 처음으로 공개했다. '빛, 서풍, 한줄기 광명'을 의미하는 '레이(RAY)'는 1000cc 엔진을 탑재해 경차의 경제성을 갖추면서도 박스형의 혁신적 디자인을 적용해 실내의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하고 다용도성

을 부각했다. 전면부는 기아차 고유인 패밀리를 라디에이터 그릴과 함께 개성적인 디자인의 헤드 램프로 LED 포지션 램프로 적용해 자신감 있는 당당한 이미지를 구현했다. 측면부는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형

태의 디자인을 적용해 넓은 실내공간을 확보하면서도 유니크한 사이드 글라스 형상을 통해 개성을 표현했다. 특히, 조속히 후측 도어를 슬라이딩 방식으로 적용해 좁은 주차공간에서 보다 쉽게 승하차 할 수 있도록 하고, 측면부 전체를 개방 가능하도록 해 뛰어난 공간 활용성을 확보했다.

※주최: 광주지방비서관실

경제 전문가 80% "내년 수출 환경 악화"

전경련 설문조사

국내 경제 전문가의 80%는 내년 우리 수출 환경이 올해보다 나빠질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지난 달 한국은행과 LG경제연구원 등 민

간·국책연구소 및 금융기관의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2012년 경제전망'에 대한 이메일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전문가들은 권역별로 유럽의 수출 환경에 대해 86%가 올해보다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에 대해서도 53%가 나빠질 것이라고 점쳤지만, 유럽보다는 덜했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은 '현 수준 유지'와 '다소 악화' 전망이 각 43%였다. 우리 경제 성장률은 전문가의 80%가 3~4%를 예상했다.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 평균은 3.4%였다. 이는 올해 정부와 국책은행, 민간 연구소 등의 전반적인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세계 경제 회복세 둔화에 따른 유가, 원자재 등의 가격 하락과 기저효과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83%가 올해보다 상승에 1,000~1,100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4개>

Table with columns for auction case number, property details, and bid information. Includes entries for apartment and detached house auctions.

Table with columns for auction case number, property details, and bid information. Includes entries for land and detached house auctions.

Table with columns for auction case number, property details, and bid information. Includes entries for land and detached house auctions.

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해당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2. 매각기일: 2011. 11. 24. (목) 10:00 3. 매각결정기일: 2011. 12. 1. (목) 16:00 4. 매각장소: 광주지방법원 입찰장 5. 매각방법 ① 입찰방식에 의한 가압류채권 우선권,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낙찰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장부에 넣어 입찰에 응하여야 한다. ② 매수신청을 할 때는 최하입찰가격 1회[10바이트]에 해당하는 보증금과 발행회차의 자기유치표 또는 현금 증빙이나 지급보증채권자를 제출한 문서[일괄 보증서]를 준비하여 한다. ③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목적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④ 입찰방식의 특성이 완료되면 관공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을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차별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한다. ⑤ 최고의가격을 신고한 최우선순위입찰자를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자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결과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된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게 매각허가결정일이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금지급기한은 중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을 넘어서지 않는다. ② 지원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 납부하지 아니하면 입찰은 실시한다. 지원 대금지급기한을 초과한 날 입찰자가 제출한 매수신청서와 매각대금 및 지원금, 비율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일괄서 제출하면 실시하지 아니한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 납부후에도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부담금, 가압류를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된다. ②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상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기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기청구수필확인서 및 등기세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국민수령청구명부명부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후 인원을 위하여 위 등기를 출제하여 준다. ③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제청은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지상권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담보권을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설 부동산거래를 하는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 반환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② 임차보증금 반환에 중점을 두어 매각기일 이후의 근무일 정액만큼 현상, 현물조사서로써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편발행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발송하여 제공받고 있으므로 미리 발송한 장부를 반드시 매각대금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설명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④ 입찰방식에 의한 입찰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한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찰명령을 받은 후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매각결정일 이후 매각대금 납부기간이 연장되더라도 매각대금 납부기한은 연장되지 않으며, 매각결정일 이후 매각대금 납부기한이 연장되면 매각이 허가될 수 있다. ⑥ 공고된 물건은 매각일 전에 경매신청이 철회되거나 집행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된다. ⑦ 신청에 응되는 물건의 최후의 매각기일이 해당되는 물건이며, 낙찰자에게는 별도로 신청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무리반 면 거사의 신고나 변경은 비변리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 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한다. ⑨ 매각일 공고의 요지는 대변인 홈페이지에서 알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ction.go.kr[민원공고 - 방문경찰보안실] ※ 대변인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용 채권관리청 영하서 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후 위와 같이 제공한 것으로서, 특히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매각물건이 신청이나 원고, 대금지급명령이나 승계배당 명령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자는 물건의 관여하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거짓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변리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1. 11. 10.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정필